

총석가(叢石歌)1)

구강(具康, 1757~1832)



총석정 (겸재 정선, 1711)

1) 작자가 64세 때인 1820년에 회양부사(淮陽府使)로 근무하면서 지은 작품.

[서사(序詞)]¹⁾

몰아라 어서 보자 총석정(叢石亭) 어서 보자
 총석정(叢石亭) 초탄 말을 일찍이 들었거니
 바람 불면, 못보려니 몰아라 어서 보자
 벽희(碧海) 우회 높은 집이 저거시 총석정(叢石亭)가
 올라 보니 후면(後面)이라 전면(前面)으로 보오리라
 비딤여라 스공(沙工)들아 풍낭(風浪)이 이지 아냐
 층파(層波)로 도라 저허 총석 전면(叢石前面) 보게 하라

몰아라 어서 보자, 총석정 어서 보자.
 총석정 초탄 말을 일찍이 들었거니
 바람 불면 못보려니 몰아라 어서 보자.
 벽해 위의 높은 집이 저것이 총석정인가.
 올라 보니 뒷면이라 앞면을 보오리라.
 배 대어라 사공들아, 풍랑이 일지 않냐.
 층층 파도 돌아 저어 총석 앞을 보게 하라.

[본사(本詞)]

비 썩여라 구뿔마다 흘니 저허 보랏이면
 영소전(靈昭殿) 태을궁(太乙宮)²⁾을 지으라고 경영(經營)턴가
 돌기둥 천백기(千百個)를 녹모로 깎가너야
 기기(個個)히 목거 세워 몇 만년(萬年)이 되얏던지
 황양(荒涼)흔 디 버렸시니 비업서 못실닌가
 요지(瑤池)의 서왕모(西王母)는 운모병(雲母屏)을 만드러서
 주목왕(周穆王) 오시거든 반도회(蟠桃會)하라 하고³⁾
 첩첩(疊疊)이 붙쳐 두고 길길이 목거 세워
 쓸 디 업시 버려 이셔 풍우(風雨)가 아롱흐니
 백운(白雲)이 깃흔 곳세 길 머러 못움긴가
 녀동빈(呂洞賓) 니태백(李太白)⁴⁾은 금슈양(錦繡帳)을 삭여너야
 주옥(珠玉)으로 씬은 글을 이 시축(詩軸)의 먹을 적서⁵⁾
 흐르는 벽파(碧波) 우회 흔 목굽을 뉘여 두고
 일월(日月)이 오릭도록 어딤 가서 아니오노
 하늘 깃던 여와씨(女媧氏)는 학희(鶴海)의 왕자교(王子喬)⁶⁾로

배 띄워라, 굽이마다 흘려 저어 보았더니,
 영소전 태을궁을 지으려고 마련했나.
 돌기둥 천백 개를 여섯 모로 깎아 내어
 하나하나 묶어 세워 몇만 년이 되었는데
 황량한 데 버렸으니 배 없어서 못 실었나.
 요지의 서왕모는 운모 병풍 만들어서
 주목왕 오시거든 반도 잔치 하려 하고
 첩첩이 붙여 두고 높이높이 묶어 세워
 쓸데없이 버렸다가 비바람이 흐릿하니,
 흰 구름 깊은 곳에 길 멀어 못 움겼다.
 여동빈 이태백이 비단 장막에 힘을 쏟아
 구슬같이 씬은 글을 두루마기에 먹을 적서
 흐르는 물결 위에 한 묶음을 뉘여 두고
 세월이 오래도록 어디 가서 아니 오나.
 하늘 깃던 여와씨는 학을 탄 왕자교와

1) 이 작품의 내용 구분은 '최강현, 휴휴 구강의 금강산 기행가사를 살핌, 새국어교육 48집, 한국국어교육학회, 1993)에 따른 것임.

2) '영소전'은 주(周)나라 문왕이 나들이할 때 머물던 궁. '태을궁'은 천제가 머물러 사는 하늘나라의 궁궐.

3) '서왕모'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불사약을 가진 선녀로 삼천 년에 한번씩 반도(蟠桃)라는 복숭아가 열릴 때 연회를 베풀었다고 함. 주(周)나라의 목왕(穆王)은 정사는 돌보지 않고 팔준마(八駿馬)가 모는 수레를 타고 천하를 두루 유람하다가 곤륜산 꼭대기의 요지(瑤池)에 가서 서왕모를 만나 극진한 환대(雲雨之情)를 받느라 돌아갈 줄을 몰랐기에, 주나라는 점차 도덕이 타락하고 국력이 약해졌다고 함.

4) '여동빈'은 당나라의 선인(仙人)으로 동정호에서 백로를 타고 놀았다 함. '이태백'은 당나라의 시인 이백(李白).

5) '시축'은 시를 적은 두루마기. 바다를 두루마기에 총석을 시에 비유한 것.

6) '여와씨'는 복희씨(伏羲氏)의 누이로, 복희씨가 죽자 뒤를 이어 왕이 된 뒤 구멍 난 하늘을 기운 오색 돌로 기웠으며 생황(笙簧)을 만들어 음률을 펼쳤다고 함. '왕자교'는 주(周)나라 태자였는데 백학을 타고 생황을 불며 구름 속으로 사라져 신선이 되었다 함.

부던 싹황(笙篁)¹⁾ 흐 묵음을 만경창파(萬頃蒼波) 썩는 가의
 곳곳이 던져 두고 무슨 일노 아니 좃노
 녕산(靈山)의 석가여리(釋迦如來) 년화대(蓮花臺)²⁾를 높게 무어
 중생(衆生)과 송법(誦法)다가 어디 가고 티만 남아
 곳마다 물의 잠겨 변(變)혀여 검었는고
 천태산(天台山) 마고(麻姑)한미 니선(李仙)³⁾을 먹이라고
 흰 썩가리 마고 만져 층층(層層)이 괴얏다가
 먹고 남은 여러 같이 푼포(解包) 되야 이러흔지
 흰 빛은 검었시나 모양은 의구(依舊)하다
 형용(形容)을 하라 하니 이러듯 하거니와
 할 길 업시 되온 일을 묵묵(默默)히 궁구(窮究)하니
 화옹(化翁)이 엇디흔지 인력(人力)으로 하올소냐
 하우씨(夏禹氏) 독괴썰이 농문(龍門)을 쫓았시나⁴⁾
 이 돌을 만났시면 이곳치 짝글세며
 영장(郢匠)이 신묘(神妙)하야 코긋히 것 썩었시나⁵⁾
 이 돌을 다듬다고 이곳치 골을소냐
 엇더흔 부근(斧斤)으로 용이(容易)히 깎갓시며
 엇더흔 승묵(繩墨)으로 천연(天然)이 골났는고
 노 업시 목것시되 틈업시 목것시며
 풀 업시 부쳤시되 흔적(痕迹) 업시 부쳤시니
 공력(功力)을 이리 들여 무어세 쓰려 하고
 흐 묵음씩 두 묵음씩 세울락 누일락
 괴괴(奇怪)이 꾸며다가 세인(世人)의 노리기 되야
 시(詩) 짓고 노래하야 기리기만 위흔 것가

불던 싹황 한 묶음을 만경창파 꺾이는 곳에
 곳곳이 던져두고 무슨 일로 아니 찾나.
 영산의 석가여래 연화대를 높게 쌓고
 중생에게 설법하다 어디 가고 대만 남아
 곳곳에 물이 잠겨 변하여 검었는가.
 천태산 마고 할미 이적선을 먹이려고
 떡 한 가래 마구 만져 층층이 괴었다가
 먹고 남은 여러 가래 풀어져서 이러한지
 흰빛은 검었으나 모양은 옛 모습이라.
 모습을 말하려니 이렇듯 하거니와
 할 길 업이 되온 일은 묵묵히 살펴보니
 조물주가 어떠한지 인력으로 한 것인가.
 하우씨 도끼 뿌리 용문을 뚫었으나
 이 돌을 만났으면 이같이 깎을 것이며
 영장이 신묘하여 코끝 검댕 썩었어도
 이 돌을 다듬으면 이같이 고를 소냐.
 어떠한 도끼로 쉽게도 깎았으며
 어떠한 먹줄로 자연스레 골랐는가.
 밧줄 없이 목었으되 틈 없이 묶었으며
 풀 없이 붙었으되 흔적 없이 붙었으니
 공력이 이리 들여 무엇에 쓰려 하고,
 한 묶음씩 두 묶음씩 세울락 누일락
 괴괴하게 꾸며다가 세상 이들 노리게 되어
 시 짓고 노래하여 기리기만 위한 건가.

[결사(結詞)]

통천(通川)의 총석정(叢石亭)과 고성(高城)의 삼일포(三日浦)며
 간성(杆城)의 청간정(淸澗亭)과 양양(襄陽)의 낙산스(落山寺)며

통천의 총석정과 고성의 삼일포와
 간성의 청간정과 양양의 낙산사며

1) 17개의 가는 대를 세우고, 주전자 귀때 비슷한 부리로 부는 관악기. 총석의 모습을 생황에 비유한 것.
 2) '영산'은 부처님이 설법하던 영취산(靈鷲山). '연화대' 극락세계에 있다는 대.
 3) '마고할미'는 중국의 천태산에 살았다는 손톱이 긴 마고선녀. '이선'은 당나라 시인 이백.
 4) '하우씨'는 황하의 물줄기를 다스려 임금이 된 우(禹)임금. 큰 도끼로 대화산(大華山)과 용문(龍門)을 찍어 열어 놓아 황하 수를 통하게 했다고 함.
 5) 장자에 나오는 목수 이야기. 중국의 영(郢)이란 지방의 어떤 사람이 코끝에 묻은 검댕이 있어서, 그 지방의 유명한 목수를 찾아가 없애 달라고 하자, 목수가 자귀(나무를 깎는 연장)를 흔들어 깎았더니 코의 검댕은 없어졌는데 코는 상하지 않았다는 고사.

강릉(江陵)의 경포대(鏡浦臺)와 삼척(三陟)의 죽서루(竹西樓)며
 울진(鬱珍)의 망양대(望洋臺)와 평해(平海)의 월송정(月松亭)은
 이 이른 관동팔경(關東八景) 즈웅(雌雄)을 의논(議論)말아
 천하(天下)의 두 총석(叢石)은 응당(應當) 다시 업스려니
 물의는 동해수(東海水)요 피의는 금강산(金剛山)과
 폭포(瀑布)의는 구룡(九龍)이오 돌의는 총석(叢石)이라
 장관(壯觀)을 다흔 후(後)의 다시곰 혼즈 말이
 괴외(魁鬼) 기걸(奇傑)¹⁾ 흥운 사름 이 ㄱ호니 잇다 흥면
 천니(千里)를 머다 말고 결단(決斷)코 츠즈리라

강릉의 경포대와 삼척의 죽서루와
 울진의 망양대와 청해의 월송정은
 이리 이른 관동팔경 자웅을 의논 말라.
 천하에 두 총석은 응당 다시 없으려니.
 물로는 동해수요, 산으로는 금강산과
 폭포로는 구룡폭포. 돌로는 총석이라.
 장관을 다 본 뒤에 다시곰 혼잣말이
 이같이 으뜸으로 뛰어난 이 잇다 하면
 천 리를 멀다 앓고 결단코 찾으리라.

1) '괴외'는 으뜸으로 높음. '기걸'은 기이하거나 뛰어난.